

## 성령강림후 제2주일/2019년 6월 23일(일)/6.25 민족화해주일

구약: 열왕기상 19,1-7

서신: 갈라디아서 3,23-29

복음: 누가복음 8,26-39

###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

1. 지난 주일 오후(6월 16일), 우리 교회 장년부와 담임목사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well aging - 행복한 노후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well aging’, 곧 ‘잘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 병으로 아파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일정한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과 후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 너무 오래 아파 누워 지내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고,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앙드레 지드(Andre Gide/1869-1951)가 말했던 것처럼,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습니다.’

아름답지 않게 나이 드는 사람을 비속어로 흔히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1960년대 나이 많은 걸인과 하층민 남자를 가리키는 또는 단지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선생님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유행했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어른을 낮추어 부르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꼰대’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번데기’의 경상도, 전라도 방언인 ‘꼰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

노인이 되면 얼굴과 목, 손등의 주름이 많아지는 것을 번데기에 빗댄 것 같습니다. 다른 설은 프랑스어 ‘콩테(comte·백작)’의 일본식 발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공신(功臣)에게 백작, 공작 등 작위를 수여했는데, 일제강점기엔 조선의 친일파도 이 작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아첨하면서 살아간 친일파들이 ‘콩테’가 된 것이지요. 권력에 아첨하면서 뻔뻔하게 살면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한히 강한 ‘콩테’가 ‘꼰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꼰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꼰대’는 자기중심적이고,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열을 중시하고, 젊은이들에게 ‘어딜 감히!’, ‘네가 해 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요즘 애들은...’하면서 젊은이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나는 말이지...’,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같은 말을 쉬지 않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옳은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아무에게나 다 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여성차별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젊은이들로부터 ‘꼰대’ 소리 듣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꼰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꼰대’에 반대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20일자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는 흥미롭게도 ‘꼰대’의 반대말이 ‘쿠르트 보니것’(Kurt Vonnegut Jr, 1922-2007)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트 보니것은 미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데, 그가 1994년 시라큐스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엇에 대해서든 절대 사과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긴 언제나 엉망이었죠.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은 언제나 기성세대에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늙은이들을 ‘꼰대’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커트 보니것은 분명 이 지구행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큰 책임을 져야할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갖은 고생 끝에 해방되었습니다. 전후 미국 최고의 수필가로 존경을 받았으나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검열당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 강변, 혹은 젊은이들에 대한 꾸짖음 대신에 사과를 선택한 것이지요. 지구행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가 ‘꼰대’에 반대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굳이 ‘꼰대’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달’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건달’(乾達)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건달’은 하늘 건(乾)에, 이를 달(達), 곧 ‘하늘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천(天)은 하늘의 형체를 그린 글자라면, 하늘 건(乾)은 주역 64괘 가운데 첫 번째 괘로서 하늘의 성격과 본질적 기능을 의미하여,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달’, 곧 ‘하늘에 이른 사람’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간다르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건달’은 본래 불교에서 팔부중의 하나로 음악을 맡아보는 신(神)인 ‘간다르바’를 한자로 음역한 건달바(乾闥婆)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는 술과 육식을 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향기만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어른, 그러나 하는 일 없이 놀거나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노년의 특징은 건달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반듯한 직업을 갖고 있어야 겨우 사람 취급 받는 세상에서, 은퇴하여 돈벌이도 없고, 집에서 삼시 세끼 밥을 먹는 이른바 ‘삼식이’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눈으로 보면 잉여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달은 돈벌이가 되는 직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건달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목표와 성과에 사로잡혀 자신을 들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남은 물론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즐거운 존재, 그가 건달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 인정이 나 평가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건달입니다.

2. 그러니 ‘건달’, 곧 ‘하늘에 이른 사람,’은 비록 밭은 땅에 붙어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잇대어 사는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건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일흔 다섯 살이었고(창 12,4), 그의 아내 사래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창 11,30). 아브라함과 사래는 자기 고향에서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었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로 부르셨고, 그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창 12,2).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 보다 조금 늦게 세상에 나왔다고 영원한 차남의 운명을 숙명적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는,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역적인 생물학적 질서를 뛰어넘었습니다. 장남에게만 모든 권한이 계승되는 시대, 하나님은 차남인 야곱을 구원사의 계승자로 만드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님도 건달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니 건달임이 분명합니다(마 8,20). 예수님은 방랑하시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셨지만’(주님의 기도/마 6,11),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2,1-11), 얼마나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던지 적대자들은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마 11,19)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막 2,27)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과 밀 이삭을 잘라 먹으심으로써, 어떤 종교적 제도와 사회적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동안 목수직도 내려놓으셨기에, 예수님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 생활을 몇몇 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 특히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건달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갈 3,27).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피부색, 종교, 인종과 민족, 성, 장애,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죽었고, 그런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갈 6,14),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의 차별구조로 사람을 나누었는데, 유독 노인과 젊은이, 곧 세대 간 차별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인이 차별받지 않았거나, 지금처럼 세대 간 갈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 들어 힘이 없고 생산능력이 없어 부양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노인들, 특히 병든 노인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사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빌립보서 4,11-12).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건달',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건달'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신다는 믿음,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는 믿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마태복음 6,25-34), 이런 믿음 없이는 '건달', '하늘에 이른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이지요.

3.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임재의 표징을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행 2,17-18)라고 보도합니다.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 이들은 모두 삶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는 너무 젊다고, 늙은이는 이미 늙었다고, 종들은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노년의 특징의 하나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꿈을 꾸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 노인들은 성령을 받고 무슨 꿈을 꾸

있을까요?

사도행전 성령강림사건은 구약성서 요엘서를 근간으로 한 것입니다(요엘서 2,28-32). 예언자 요엘은 주전 4세기, 자기 조국 유다가 충격적인 자연재해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볗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요엘서 1,19-20). 밭에는 말라비틀어진 풀만 남았는데, ‘풀무치가 쓸고 지나가니, 이어서 메뚜기가 갹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 버렸습니다.’(요엘서 1,4). ‘밭이 황폐해지고 곡식이 다 죽으니 땅이 통곡하고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요엘서 1,10-12).

그런데 요엘은 이런 충격적인 자연재해를 오고 있는 주님의 날의 표징, 곧 파멸의 날로 선포합니다(요엘서 1,15).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백성이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요엘서 2,28-29).

아들딸들의 예언, 노인들의 꿈, 젊은이들의 환상은 무엇에 대한 것이였을까요? 요엘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노인들이 꾸었던 꿈, 젊은이들이 보았던 환상은 ‘회복된 나라’였습니다: ‘때가 되어 그 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요엘서 3,1).

노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파멸된 예루살렘과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이 회복되는 꿈을 꾸는 것이지요. 아직 너무 젊다는 이유로, 너무 나이가 많

다는 이유로 세상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꾸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흐르고, 언덕마다 젓이 흐르며,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나와 씻김 골짜기에 물을 대어 주는’(요엘서 3,18)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이 볼 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젊은이와 늙은이, 여종과 남종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내게는 세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령을 받아 꿈을 꾸는 어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형제전쟁을 겪고,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전상태로 분단된 민족의 화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남과 북 사이는 물론, 남한 내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사이의 화해와 짝 막히고 단절된 관계의 회복 말입니다. 독기어린 막말과 고집스런 자기주장만이 난무하는 끈대들의 세상에서 화해와 회복의 건달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성령 받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 <설교 후 기도>

주님, 오늘은 한국교회가 ‘6,25민족화해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야만적인 형제전쟁이 휴전으로 끝난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고통 받는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계는 이미 뜨거운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차거운 이념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는 이미 국경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두껍고 높은 장벽을 쌓아가고 있으니,

평화의 주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남과 북, 동과 서를 갈라놓는 장벽을 우리 몸으로  
허물고 화해된 나라,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봉헌기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 위에 강복하시옵소서(고후 8,12).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지, 아까워하면서 바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정한대로 기쁨으로  
바치오니(고후 9,7),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강복하시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평화와 화해의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샘솟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고,  
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